

지역 소식 통

부안군, 가뭄 · 폭우 대비
단계별 용수공급 체계 강화

부안군은 올해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폭우 등을 대비하기 위해 단계별 용수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가뭄 · 폭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발생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단계별 대책으로는 읍 · 면 보유 양수장비 등 장비 정비, 농어촌공사와 협력해 농업용수 절약 홍보 실시, 가뭄 피해 우려 지역 양수기 · 급수호스 등 양수장비 전진 배치, 읍 · 면 협조를 통한 급수 요청 농가 즉시 지원, 피해 발생 지역에 신속한 지원 체계 가동 등을 마련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군 관내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90% 이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앞으로도 선제적 관리와 주민 협력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81건 선정

정읍시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81건의 대상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 25건, 계속사업 56건 등 총 81개 정책을 심의 · 의결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 관리해 시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 신뢰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투입 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및 폐지 △시민 신청 사업 등이다.

시는 이들 가운데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3천명 육박

고창군, 공공형 계절근로자 55명 포함 2500명 입국 · 570농가에 배치

올해 고창군 농촌현장에서 일손을 도울 외국인계절근로자가 3천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전국 최다 인원으로 농가 일손부족 해결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환영식과 근로자 의무교육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지역농가 관계자들이 함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고창군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55명을 포함한 2500명이 입국해 570농가에 배치됐다.

하반기에도 500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으로, 전체 3000여명의 근로자가 고창에서 함께 일하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내걸고,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베트남에 이



어 올해는 라오스까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첫해인 2022년 300여명에서 2023년 600여명, 2024년 1800여명을 넘어 올해 3000명으로 매년 계절근로자 입국인원이 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 · 어촌 인력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단기 고용하면서 농가의 호응도가 높다.

근로계약 기간은 총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향후 재입국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특히 선운산농협과 대성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하루 단위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도 운영중이다.

고창군은 △언어소통 도우미 △계절근로자 전문관 배치 △작은영화관 무료영화관람 △무료건강검진 △사망의 옷 기부행사 △삼겹살 파티 △하년의 료공제 가입 △무료관광 · 문화체험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새 바디슬라이드 ‘눈길’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19일 개장... 8월 17일까지 운영

정읍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칠보물테마유원지를 19일부터 개장한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겨 찾는 여름철 인기 물놀이 명소로, 올해는 특히 새롭게 도입된 바디슬라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설은 곡선 구조와 낙차를 개선해 스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진행된 임시 개장에서는 약 2000여 명의 시민들

이 몰리며 유원지는 이미 한여름 열기로 가득했다.

새롭게 설치된 바디슬라이드는 특히 아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임시 개장을 통해 시민들의 기대와 반응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8월 17일까지 운영,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 안내와 관련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천정비에 230억 투입... 재해 예방 · 환경 개선

정읍시, 시민 생명 · 재산 보호

정읍시가 집중호우와 태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천정비에 총 23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재해예방과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방하천과 소하천 12.23k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적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우선 감곡천 감곡지구와 통석지구 2

곳, 총 7.51km에 대해 75억원을 들여 지방하천 정비를 실시한다.

더불어 웅동면 내동소하천 등 8개소 4.72km의 소하천 정비에도 83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하천 주요 정비 대상은 △웅동면 내동소하천(0.78km) △감곡면 방교소하천(1.21km) △정우면 규촌소하천(0.15km) △칠보면 장군봉소하천(0.35km) △소성면 보화소하천(0.93km) △장명동 귀암실재소하천(0.31km) △덕천면 상학소하천

(0.57km) △영원면 운학소하천(0.42km) 등 총 8개소다.

이와 함께 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유지관리에도 약 72억원을 편성해 하천 준설과 자생 수목 제거, 제초작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중 국비와 도비는 각각 64억원이며, 시비는 6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204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6개소(7.51km)와 소하천 5개소(4.76km)를 정비, 안전가방을 강화해 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우면서 ‘손끝바나나’ 재배 성공

정읍시에서 국산 바나나 품종 ‘손끝바나나’의 재배에 성공하면서 아열대 작목의 신시장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정우면 박정현 농가는 지난해 15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 바나나 묘목 150주를 심었다.

이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정성껏 키운 결과, 약 4.5톤의 바나나 수확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정읍은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아열대 작물 재배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셈이다.

정읍산 바나나는 평균 10℃ 이상의 온도와 풍부한 일조, 적절한 관수 조건 속에서 자라났다.

특히 후숙 과정

을 통해 최적의 당도와 식감을 갖추도록 관리됐다.

수입산과 비교해도 신선도와 품질 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

깊은 풍미와 뛰어난 질감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총력

고창군이 김영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조직(TF) 4개 반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지급 준비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전날(16일) 전담TF 최종 점검 회의를 열고 기획예산실 · 행정지원과 · 사회복지과 등 협업부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추진체계와 부서별 역할,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지급될 계획이다.

21일부터 1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 지급되며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18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다.

특히 고창군은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지원과 · 사회복지과 등 협업부서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추진체계와 부서별 역할,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지급될 계획이다.

21일부터 1차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특히 고창사랑카드는 약 2900여개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 농협 농자재판매장 7개소(고수, 아산, 성송, 심원, 성내, 신림, 부안)가 추가 등록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은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 (고창사랑페이)앱 · 콜센터 등 온라인과 읍면 주민행복센터 또는 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하이라이트 인 서울’ 개막식

부안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6일 서울 인사동 갤러리아시아에서 개최한 ‘하이라이트 인 서울’ 전시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권익현 부안군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렬 부안문화원장, 이원종 재경부안군향우회장, 미술평론가 반이정, 이섭 김성호, 박삼철 등 80여명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하이라이트 인 서울’ 전시는 재단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예술인

창작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프로젝트로 올해 선정된 7인의 시각예술 작가가 참여해 서울이라는 예술 중심지에서 부안 예술의 정체성을 알리고 타 지역 예술계와 교류하는 무대를 만들었다.

이날 참석한 미술평론가들은 “지역성은 곧 예술의 자원”이라며 “부안 예술이 지닌 고유한 시선과 감각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